

■ 보스턴 서운사 주지 서광 스님의 '우리아이 가정교육법' '부모는 자녀의 미래다' (4월1~2일 서울 봉은사)



공부만 잘 하면 모든게 용서되나요?

부모의 마음가짐 · 일관성 있는 태도 아이들에 큰 영향

"오늘이 관음재일이고, 여기 오기 전에 방담에서 '내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부모는 자녀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4월 1~2일 양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진행된 강연회 현장. 서광 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이 묻자 법왕루를 가득 채운 300여명 대부분이 손을 높이 들었다. 다시 스님이 "부처님 전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분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이번에도 정중을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이어지는 스님의 따끔한 일침.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상대가 바뀌길 기도하기보다 나를 제대로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자녀와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보스턴 대학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서광 스님은 어린이 인성지도 캠프를 진행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자녀교육에 대한 지점을 끌어냈다.

일반적인 자녀 교육법과 달리, 스님이 강조하는 '교육'의 주제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다. 서광 스님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시킬 때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가 아이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봉은사 법왕루에서 서광스님의 가정교육법을 듣고있는 불자들이

눈높이 맞춘 진심어린 대화 중요 자녀에 문제해결 방법 가르쳐야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 및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부모는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이것이 내 즉흥적인 기분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 아이를 위한 것인가'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

"요즘 부모들의 관심은 오직 공부뿐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버릇없이 굴며 부모마저 무시할 때도 공부만 잘하면 문제 삼지 않다가도,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대체 뭐가 문제니?' 하고 묻지요. 하지만 그런 질문마저도 진정으로 아이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감정을 수습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대화 방식은 항상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을 가져온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스님은 또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눈과 눈을 맞추고 나누는 진심어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때는 자신의 감정을 비워놓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러 스님은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나누는 대화에도 법칙이 있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문제가 일어난 후 잘못된 점을 다그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부모가 화를 내면 불합리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태도와 조용한 말로 타일러 스스로 납득하도록 이끌어야 하지요."

스님의 강연을 들던 한 참석자는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스님이 말씀하신 '나를 비운' 상태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대답은 단호하다. "아이에게 공격적으로 야단을 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화를 아이에게 표현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납득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까? 좋은 부모는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것보다, 자녀가 문제해결을 하는 최선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님은 아이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부모가 화를 표현하기 보다는 아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대화에 임하고 △대화를 할 때는 1대1로 꾸짖기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여 토론해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아이가 스스로 정하도록 유도해 △2개월 정도 매일 밤마다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 서광 스님이 조언하는 다섯 가지 교육법

1. 아이의 그릇을 키워라
눈에 닿장 보이는 학교성적에 매달리거나, 부모가 못 이룬 것에 대한 미련을 아이에게 투사하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애착을 갖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교육에 임하라.



2. 문제의 해답보다는 문제를 푸는 원리를 가르쳐라
변화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 고의 유연성, 탄력성, 창조성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보다는 '너라면 어떻게 하겠 니?'라고 물어보고 아이의 문제해결과정을 인내심 있게 지켜보라.



3. 자기인생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홀로 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릴 때 부터 교육하라.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단 일으켜 세우지 않고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아이에게 칭찬을 건네는 식이다.



4.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70~80%만을 주어야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베풀어버리면 소중함을 모르게 된다. 만약 가계지출 중 자녀교육비가 자녀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쓰는 지출의 20~30%는 부모 자신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아이에게 필요한 적절한 자금을 주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5. 부부가 한 목소리를 내라
부부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교육방침을 세워야 아이도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교육에 대한 지침을 부부가 서로 의논해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 일로 아이를 앞에서 다루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값진 교육은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13)

中, 인도 망명정부 의학성 성과 외면

지난 호부터 티베트의학의 세부 내용과 제아 산업의 육성에 대해 소개해온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을 읽어본 필자의 개인적 소회를 잠깐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제목부터가 무척 심기에 거슬렸다. '중국'을 굳이 앞세운 제목 설정의 의의는 뻔한 것이다. 티베트의학(중국에서는 '장의학'이라함)을 한족과 50여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거대 중국의 여러 중국전통의학종의 일부로 공식화하려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저자도 티베트인(藏族)이 아닌 한족(漢族)들이다.

지면 곳곳에서 억지스러운 정도로 중의학(한의학)의 개념과 대비시켜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하게 불교적 배경을 배경하고 사 실(史實)에 입각한 '과학성'을 유난히 강조

80~90년대부터 티베트의학 전문인의 양성 과 제약 산업의 육성에 진력해온 나름대로 의 꾸준한 노력과 자취가 고스란히 배어있 다. 양으로 압도하겠다는 '인해전술'이 연 상된다.

어찌됐건 새해 들어 발간된 최신간으로 361쪽의 비교적 방대한 분량에 티베트의학 의 전반을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었다. 서양 언어를 통해 티베트의학의 공부를하거나 연 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되돌아가 다섯 유형의 위 증 들 째, 상행위(上行氣)를 살펴보자. 상행위의 주체(主體)는 가슴에 위치한다. 이 에너지는 코 혀 및 목구멍을 운행한다. 그리고 발을 기어 안색(안색) 명석함과 근면성을 주관한다. 상행위에 혼란이 있으면 말하는 행위에 이상이 온다.

셋째, 범습위(汎濕氣)는 편행위(偏行氣)라 고도 할 수 있는데 심장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약학' 티베트 의학 '중국의학의 일부' 부각 상행-언어, 범습-심장, 화반-소화, 하설-배설 관장

하고 있다. 약사부처님과 제자들 간의 문답 형식으로 전개된 하나의 경전으로 약사부 처님이 설하신 것으로 알려진 <사부의전>의 기원에 대해서도 고증학의 명분을 빌어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정교한 인조인간을 대하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든다. 최근 고구려를 자기들의 변방 민족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교묘한 수작 이 바로 티베트의 침략사와 동화 정책을 그 모델로 한 것이다.

위험된 심기를 추스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껏 서양 언어로 출간된 티베트의학 단행본들 중 질과 양에 있어 보기 드문 수작임을 알 수 있다. 필자의 '한국티베트의학 원' 소장 티베트의학 도서 40여 단행본들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영문 서적이다. 그래서 최근 중국 내의 티베트의학 연구 성과와 현 황들이 충실히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결 정적인 흠으로는 티베트의학의 세계적인 선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 티베트망명정 부쪽의 눈부신 활약상과 국제적 위상을 애 쳐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열풍과 시장성을 의식하여

문자 그대로 온몸에 두루 퍼져 혈액순환과 영양공급을 주관한다. 또한 경이 들어올리 기 뻗치기 등의 사지활동과 입눌림 눈 깜빡 임 말하기와 사고에 관여한다. 범습위에 불 균형이 있으면 모든 신체의 동작과 운동기 능에 이상이 생기며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 다. 정상적인 심신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이다.

넷째, 화반위(火伴氣)는 위에 자리하고 소 장과 대장 등의 장기들 내부를 순환한다. 영 양분(精髓)과 노폐물(糟粕)의 분리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혈액 같은 7대 체구성분질 의 생성을 돕는다. 화(火)를 수반하는 이 에 너지에 부조화가 생기면 전소화계에 이상 이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하설위(下泄氣)가 있다. 이 에너지는 황문 혹은 직 장에 위치하여 대장 방광 회음부(생식기) 및 안쪽 대퇴부 등 신체하부를 운행하며 사정 월경 배뇨 배변 그리고 분만 과정에 관여한 다. 하설위에 균형이 깨지면 신체의 모든 배 설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고 출산 시 분만 이 지연될 수 있다.

■ 이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제105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을유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1천 3백여년 전 의상스님께서 창건하신 이래 여러 대덕 스님들이 주석하신 유서 깊은 도량이자 전통적인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율 근본도량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단,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써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經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그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범어사 금강계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오니, 여러 불자님께서는 수회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傳戒師: 瑞海 興教 大和尚

삼 화 상
전계대화상 서해홍교
갈마아사리 해월선대
교수아사리 제월통광

칠 증 사
존증아사리 서담대성 · 서암혜관
일운담연 · 정사도근
태인몽산 · 보륜지정
금우인각

■ 입 재 : 불기2549년 4월 21일 (음 3월 13일)

■ 회 향 : 불기2549년 4월 23일 (음 3월 15일)

■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

3일간

○ 동 참 금 : 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39701-01-142121
(예금주:범어사)

○ 접 수 : 원주실 (051)508-3636, 3721
종무소 (051)508-3123~7
범어사 각 말사(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梵魚寺